‘코로나 농담’ 김재중 거센 후폭풍


김재중

일본라디오 출연 취소 다른 관계자까지 격리

국민청원 처벌 요구… “처벌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만우절 농담’을 한 가수 김재중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1일 일본에 머물던 김재중이 SNS를 통해 “코로나19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혀 많은 팬들이 충격 속에 걱정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김재중은 다시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이 걱정해 주셨다”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감하고 엄중한 시기에 경박한 언행이었다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그는 이날 밤 다시 사과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일 오후 2시(이하 한국시간) 현재 1만2000명이 동의하고 나섰다.

외신마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일 “200만 팔로의 영향력 있는 케이팝 스타가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를 선택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는 웃을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본 NHK, 영국 BBC 등도 비판했다.

일본의 분위기는 더 심각하다. 1일 NHK 1라디오 ‘후루야 마사유키의 팝A’ 제작진 측은 그의 출연을 취소했다. 김재중의 황당한 거짓말로 다른 출연자와 관계자들은 격리조치됐고, 감염 경로 역학조사를 위해 공무원들이 파견되기까지 했다. 이에 3일 TV아사히 음악프로그램 ‘뮤직스테이션’ 출연도 불투명해졌다. 5일 NHK BS 프리미엄 ‘더 커버스’ 명곡선 2020 출연이 취소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며 당분간 현지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김재중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됐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감염병 예방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때 역학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김재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윤 반장은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라며 “발언이나 SNS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랜선 봄’ 즐길 수 있는 추천 콘텐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있을까.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은 홀로 흩어지고 만다. 여기저기 꽃망울이 터지고 있지만 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도, 다 함께 즐길 수도 없어 아쉬울 뿐이다. 그렇다고 한숨만 내쉴 필요는 없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직접 맞아야 봄을 실감할 수 있는 건 아닐 터이다. 셰익스피어는 “음악을 듣는 순간만은 악한 사람도 아름다워진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음악이란, 멜로디와 리듬으로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웃음과, 다정한 눈물과, 함께 보듬어 안게 하는 따스한 한 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면 무리일까. 그건 또 하나의 ‘희망 바이러스’이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당분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면, 집에 머물고 싶다면 TV와 컴퓨터를 켜보라. 그리고 한 편의 드라마와, 한 편의 영화와, 한 곡의 노래가 품어낸 ‘희망 바이러스’를 확인해보라.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더욱 더 전파되길 바라며….

드라마·영화·음악으로 전하는 따스한 위로

■ 드라마 3선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섬마을의 봄 이야기

●**고맙습니다**(극본 이경희·연출 이재동·주연 장혁, 공효진)

의료사고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딸을 혼자 키우는 미혼모가 의사를 만나 편견에 맞설 용기를 채워가는 이야기다. 에이즈와 미혼모가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의사의 말은 빈부, 인종, 성(性) 등 각종 차별이 난무하는 현실을 다시 되새겨보게 한다. 모든 등장인물이 서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뭉근하게 데운다. 나뭇가지에 푸릇한 잎사귀가 돋아나는 이른 봄 섬마을의 풍경도 따뜻하다. 어른들을 웃기고 울린 아역 서신애의 극중 이름 또한 ‘봄이’다.



‘강제 집콕’ 요즘 상황과 닮은 PD들의 애환

●**프로듀사**(극본 박지은 등·연출 표민수 등·주연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

드라마 속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국 사람들의 정신없는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새 활기가 차오른다. 일이 바빠 출퇴근길에서만 꽃을 바라보는 예능PD가 “아무튼 여의도 벚꽃나무는 아주 그냥 몽땅 다 뽑아버려야 해”라고 투덜거리는 장면은 감염병 확산으로 방 안에 ‘갇힌’ 처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까. 사회초년생으로 어리바리하지만 열정 가득한 신입PD 김수현을 응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인공들의 엇갈리는 짝사랑이 주는 설렘과 ‘예능드라마’를 표방한 코믹함은 덤이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훈훈한 교감

●**나의 아저씨**(극본 박해영·연출 김원석·주연 이선균, 아이유)

부모 없이 병든 할머니를 모시며 닥치는 대로 사채 빚을 갚는 힘겨운 일상, 이제 막 20대 초입에 들어선 파견직원이 직장상사를 만나 겪는 변화를 그렸다. 상사와 그의 형제들, 이웃들과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며, 조금씩 바뀌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는 이들에게도 따스한 위로를 안긴다. 초반엔 무채색의 두터운 코트에 몸을 숨기다 마지막 순간 극중 이름인 ‘지안(至安)’처럼 “편안함에 이르렀나”고 묻는 상사에게 “네”라고 대답하는 주인공의 미소가 긴 겨울을 보낸 봄을 연상하게 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영화 3선



고단함 달래준 음식들…저절로 ‘힐링’

●**리틀 포레스트**(감독 임순례·주연 김태리, 류준열, 진기주)

‘봄·여름·가을·겨울’의 4계절은 순환한다. 아무래도 시작은 봄이다. 겨우내 얼었던 땅 위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따스한 햇볕이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에 퍼져나가는 까닭일 터이다. 겨울처럼 차가운 도시에서 쫓겨나듯 고향으로 내려온 혜원의 새로운 계절도 마찬가지다. 서울살이의 고단함을 달래준 된장국에서부터 배추전의 사각거림, 크림 브륄레에 깃든 엄마의 추억, 그리고 시루떡과 콩국수…. 채소를 키워내는 땅은 혜원과 같은 청춘에게 또 하나 시작의 바탕으로서 아름답다. “겨울에 심은 양파는 봄에 심은 양파보다 몇 배나 달고 단단하다”는 혜원의 친구 재하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을’의 말못할 고통?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감독 켄 로치·주연 데이브 존스, 헤일리 스콰이어)

감염병의 고통은 왜 없는 이들, 갖지 못한 자들에게 더욱 가혹한가. 스스로 위기와 침체에 맞닥뜨리고서는 그 비겁한 실체를 드러내는 ‘갑’들의 책임 회피의 결과는 왜 늘 ‘을’들을 향하는가. 병을 앓게 돼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노년의 목수는 왜 스스로 질병을 증명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가. 생리대조차 구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싱글맘 케이티는 왜 수치심을 안아야 하는가. 이들과 이웃들이 서로에게 내미는 손은 결코 위 물음들에 답이 되지 못할지언정, 마침내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에서 ‘을’들의 굳건한 연대가 시작됨을 알려준다.



답답함 해소해줄 춤과 노래의 판타지

●**라라랜드**(감독 데이미언 셔젤·주연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

희망과 연대의 새로운 봄을 맞기 위해 어깨 힘을 좀 빼볼까. 사랑 속에서 각기 꿈을 찾아 나선 두 남녀의 이야기. 꿈을 향한 여정은 결코 편하지 않아서 도중 나자빠지는 길에서 사랑마저도 상처로 남는다. 상처는 훗날 추억의 단단함에 안기게 될까.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이 미소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는 건 아마도 그 덕분이리라. 꿈만으로도 일상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판타지’? 그래도 좋다. 고속도로를 빼곡히 메운 차량 행렬의 답답한 정체를 참을 수 없는 이들의 경쾌하고 발랄한 춤과 노래가 판타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일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음악 3선

“괜찮아 잘 될거야” 힘든이들 위한 응원곡



●**슈퍼스타**(이한철)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 가수 이한철이 2005년 선보인 노래는 밝고 경쾌한 멜로디로 여전히 사랑받는 곡이다. 특히 ‘괜찮아 잘 될 거야/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괜찮아 잘 될 거야/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잔에 마셔 버리자’라는 희망찬 가사가 인상적이다. 노래는 시간이 흘러 더욱 빛을 발하나보다. 최근 이한철을 비롯해 신현희, 이상미, 토마스쿡 등 18명의 가수가 한두 소절씩 새로 불렀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힘 잃은 이들을 응원한다는 의미다.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방탄이 부르는 봄송



●**봄날**(방탄소년단)

해마다 이맘때쯤 음원 차트에 재진입하는 곡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다면,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고나 할까.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봄노래 가운데 몇 안 되는 곡 중 하나이긴 하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을 위로해왔다. ‘봄날’에서도 이들은 같은 방식을 택했다. 덕분에 방탄소년단도 2017년 노래 제목처럼 긴 어둠을 뚫고 ‘봄날’을 맞이했다. ‘아침은 다시 올 거야/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으니까/벚꽃이 피나봐요/이 겨울도 끝이 나요’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희망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안치환)

전주부터 신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목에서부터 힘이 솟구친다. 강물이 온 몸을 휘어 감는 듯한 힘이 느껴져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듯하다.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은 덤이다. 가사는 어떤가.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누가 뭐래도/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데, 비록 내가 꽃보다 아름답지 않아도 노래 한 곡만으로 충분히 기분 좋아진다.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라는 희망가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